

보도자료

2011년 5월 12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국제협력관실 국제기구담당관 전영만 과장(☎750-1730)
국제기구담당관실 김기제 사무관(☎750-1733) mussac@kcc.go.kr

홍성규 부위원장, 베트남 정보통신부 차관과 양자회담 - 양국 간 방송통신 분야 협력방안 논의 -

홍성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 12일(목) 오전, 방송통신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탕 형 응웬(Thanh Hung Nguyen) 베트남 정보통신부 차관을 접견하고, 양국 간 ICT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

홍 부위원장은 '09년 10월 한-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'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'로 격상된 이후 상호 간 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, ICT 분야에 있어 와이브로 및 LTE 등 4세대 이동통신, 지상파 DMB, 방송콘텐츠 등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.

이에 탕 형 응웬 차관은 한국의 발전된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양국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. 아울러 베트남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 정책경험 공유할 것을 희망하면서 초청연수 등 상호 간 교류 기회를 확대해 주도록 요청하였다.

홍 부위원장은 향후 베트남 측의 구체적인 협력제안이 있는 경우,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.

아울러 홍 부위원장은 올해 11월 16일(수) ~ 18일(금)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APT 총회 시 치뤄질 APT 차기 사무총장 선거(임기 : '12~'14)에서 한국인 후보자(위규진 전파연구소 전파환경안전과장)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한편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지난 '08년의 와이브로 테스트 라이선스 발급에 이어, '10년 8월에는 5개 통신사업자에 LTE 테스트 라이선스를 발급한 바 있으며,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'10년부터 베트남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상파 DMB 시범서비스는 이르면 금년 상반기 내 상용서비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. 캄보디아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지상파 DMB 상용서비스가 실시될 경우, 인도네시아 등 인접 국가로의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양자회담을 통하여 “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ICT 분야 협력이 보다 확대되고, 국내 방송통신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 끝.